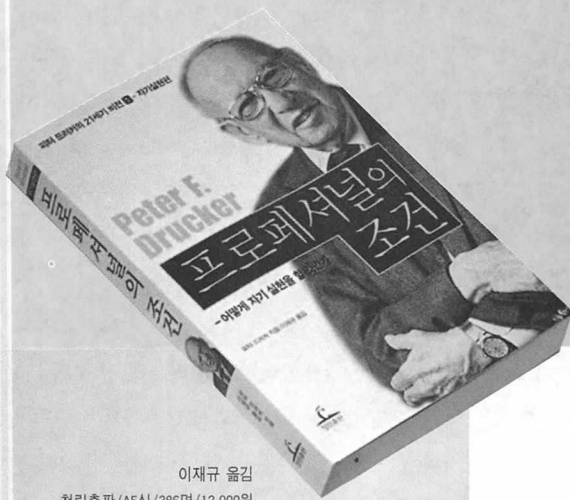


'편견'으로 읽은 드러커의 '성공신화'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을 읽고

류동민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규 옮김
청림출판/A5신/386면/12,000원

유난히도 더웠던 대입수험생 시절의 여름, 시간은 없고 공부만 안되고 초조한 마음에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냈으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을 정확하게 측정해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갈 때면 그 시간 만큼을 정확하게 손수 공부시간에서 공제했고, 잠자리에 들 때면 그날의 총 학습시간을 합계해본 후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불안감에 휩싸여 뒤척이곤 했다.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에서 날카롭게 묘사한 근대적 공장의 시간관리,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의 기법들을 스스로 익혀 적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아, 내 몸 속에 흐르는 위대한 자본의 피여!

프로페셔널이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

경제학 교수랍시고 앉아 있노라니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길러 성공하는 직장인 또는 사회인이 될 수 있을지 물어오는 학생들의 질문이 여전히, 참으로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또 명색이 사회과학자다 보니 정보화사회나 디지털경제니 하는 논의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제학보다는 현실적(!)이고 개인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가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경영학, 그 가운데서도 이른바 지식경영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인 피터 드

러커의 책부터 읽어 보리라는 다소 상투적인 접근계획을 세우고 있던 차에, 《출판저널》의 권유로 손에 잡게 된 책이 《프로페셔널의 조건》(청림출판)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프로페셔널이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 프로페셔널이 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협박성 충고에 노출돼 왔던가? 그렇지만 드러커가 책 속에서 소개하는 에피소드에도 등장하듯, 그의 가르침은 사실 “우리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가르쳐 왔던 조건과 다를 바 없는” 일견 평범한 내용뿐이다. 아,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슬하게 들어왔던 프로페셔널이 되는 방법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드러커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는 내내 나는 드러커나 미래학, 경영지침서 등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 뭔가 객관적으로 유익한 점을 읽어냄으로써 최소한 취업전선에서 분투중인 제자들에게 한마디 답변이라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야만 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종종 다윈, 프로이트와 함께 ‘현대 세계를 창조한 삼위일체’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정말 정의라는 것이 있다면 마르크스 대신 테일러를 그 자리에 앉혀야만 한다”는 드러커의 확신에 찬 서술 앞에서 나의 갈등은 여지없이 붕괴되고 만다. 해서, 인문주의적 교육이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의 기법을 스스로 익혀두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드러커는 테일러적인 공장제도 아래에서 이뤄지는 시간관리와 개인이 성공을 위해 추구하는 시간관리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늘날 개인의 성공을 위한 불변의 지침을 강조하는 것은 그 또는 그녀가 속한 사회의 계급적·역사적 맥락을 무시하며 결과적으로는 은폐할 뿐이다.

현실을 이해시켜주지 못한다는 정당한 비판조차도 내 귀에는 그저 그것이 글로벌화된 경쟁 속에서 대처해나가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지식근로자들에게는 필요없다는 소리로만 들린다.

드러커의 이론적 결함

테일러의 주관적인 의도가 노동자를 위한 것이건 아니건, 그가 체계화한 이른바 과학적 관리기법이 적어도 ‘정보혁명’ 이전까지는 자본에 의해 노동의 숙련을 해체함으로써 드러커가 그토록 강조하는 지식노동자의 탄생을 배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상식이다. 상식을 뒤집어봄으로써 인상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드러커의 의도는 정보혁명(또는 지식혁명) 이후의 사회가 포스트자본주의 사회라는 주장과도 논리정합적이지 않다. 테일러적인 공장제도 아래에서 자본에 의해 추구되는 시간관리와 개인(심지어는 대입수험생이!) 성공을 위해 추구하는 시간관리를 그저 동일한 본질을 갖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자본주의와 포스트자본주의의 역사적 구분이라는 것도 무의미해질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개인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불변의 지침을 강조하는 것은 그 또는 그녀가 속한 사회의 계급적·역사적 맥락을 무시하며 결과적으로 은폐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는 매우 상투적인 결론에 다시 이르고 말았다.●